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3. 12.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21일, 이상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일위원회(2023년 11월 30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3년 12월 8일)

상정 · 제안설명 · 심사 · 수정의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일위원회(2023년 12월 8일)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상민 의원)

2023년은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광산근로자 파독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양국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 각별한 신뢰와 우정을 쌓아왔으며 오늘날 상호 소중한 협력파트너로서 공고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분단의 상처를 딛고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 온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더욱 각별한 연대감을 지니고 있음. 또한 지난 2023년 10월 19일 독일연방의회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으로 한번 더 확인하였음.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간 상호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독일연방 하원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지원을 포함,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구심점을 역할을 다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송 병 철)

가. 결의안의 제안 취지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①

양국이 세계 분쟁의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②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 ③ 양국간 인적교류의 확대를 도모할 것 등을 촉구하도록 하기 위함임.

나. 결의안의 제안 배경

2023년 10월 19일 독일 연방하원은 ‘한독가치 파트너십 강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결의안’을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공동명의로 본회의에 상정 및 과반수로 채택하였음. 동 결의안은 독일과 한국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① 독일과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가치 파트너로서 평화, 안보, 인권 존중,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하고, ② 한국이 경제대국으로서 아시아에서 독일의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며, 독일 연방정부 및 EU 인태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바 양국관계의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③ 한국과 독일이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는 만큼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저지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동 결의안은 독일 연방하원의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에 따른 답신으로 국회 차원의 결의를 통해 독일 연방하원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회가 양국관계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자 제안된

것임. 우리 국회는 한독수교 130주년(2013년)에도 ‘한-독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을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하여 의결(2013. 12. 18.)한 바 있음.

다. 한-독간 외교관계 연혁

한국과 독일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연혁을 보면 1869년 폰 브란트(von Brandt) 주일 독일공사가 부산에 건너와 양국간 우호·통상조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동래부사의 거절로 무산되었음.

이후 수차례의 협상 끝에 1883년 11월 26일 민영목 외무독판과 차페(Eduard Zappe) 주요코하마 독일총영사간에 조·독 통상우호항해조약이 체결되었고, 1884년 11월 18일 서울에서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었음.

서독정부는 전승국에 의해 작성된 점령국 규칙에 의거 대외적 행동이 제한되었으며, 파리조약(1954년)으로 점령국의 지배가 종식되어 1955년 5월 주권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나라와의 국교수립 추진이 불가능하였음. 그럼에도 양국간 인사교류 및 통상관계 증가에 대비하여 1954년 10월 한국은 레마겐(Remagen)에 총영사관을 개설하였으며, 양국은 1955년 12월 1일 서로 상대를 국가로 승인하였음.

이후 한국전쟁 중 서독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1954년 부산 야전 병원을 설립하였고, 유엔 안보리의 긴급 구호계획에 관한 결의에 따라 기

증금 47,000불을 한국에 제공하였음.

국교가 재개되자 양국은 분단경험 공유로 결속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60년대 중반까지 서독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였던 할슈타인(Hallstein) 정책¹⁾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외교정책에 그대로 도입하였음. 서독은 전후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재정, 경제 및 기술원조를 제공하였고, 한국은 서독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노동력 지원요청에 따라 한국 간호원 및 광부를 파견, 상호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음.²⁾

라. 검토의견

양국은 분단의 상처를 딛고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 온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수교 140주년인 올해는 매우 의미가 있는 해임. 또한 독일 연방하원이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바,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과의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확충할 것을 결의하는 등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서독만이 자유선거에 의한 정부를 가진 유일한 독일의 합법국가이므로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단절(대독전승국인 소련만은 이 원칙에서 예외)하겠다는 정책으로 당시 외무장관 W.할슈타인이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됨.

2) 1963년 246명의 한인 광부가 서독에 도착한 이래 1977년까지 총 8,359명의 광부, 10,371명의 간호사(1964-1976)가 독일에 파견되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이명수)

주문 문구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수정안, 「한-독 수교 140주
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12.

제 안 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주문 문구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주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과 독일이 1883년 11월 26일 통상우호항해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미래를 향한 소중한 동반자로서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왔으며 양국의 발전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독일은 지속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서독은 전후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재정, 경제 및 기술원조를 제공하였고, 한국은 서독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노동력 지원요청에 따라 한국 간호사 및 광부를 파견하여 1963년 247명의 한인 광부가 서독에 도착한 이래 1977년까지 총 7,936명의 광부, 10,564명의 간호사(1965-76년)를 파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독투자는 누적액 기준 63.8억불이며 독일의 대한투자는 141.7억불에 달하

고 있다. 현재 양국 간 286억불에 달하는 교역량과 유럽연합(EU)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써 교역 경제 다변화 차원에서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불평등, 청년실업, 지역불균형, 여성차별 등 현재 세계 각국이 봉착하고 있는 구조개혁적 과제를 먼저 다루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DNA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할 공통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난 10월 독일연방의회는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을 과반수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역시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상황 변화에 맞추어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익 증진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민족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독일이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이 민족분단의 아픈 역사를 공유한 연대감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2. 현재 양국 간 280억불에 달하는 교역량과 유럽연합(EU)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점에 만족을 표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과 투자의 증진, 기술협력의 강화 등 경제통상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데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독관계의 역사적 긴밀성과 양국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국제적 역량과 비중으로 비추어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제반 핵심 미래 산업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콘텐츠, 경제, 산업·과학기술 분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독한근로자채용협정의 일환으로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광부 8,000여명과 간호인력 10,000여명은 독일(서독)에 크게 기여한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사회초년생 및 청년을 위한 단기 인턴십 또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의 언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촉구한다.

4.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회불평등, 청년실업, 지역불균형, 여성차별 등 현재 세계 각국이 봉착하고 있는 구조개혁적 과제를 먼저 다루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할 공통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기후 보호를 국가적 목표로 선언하고 파리 협정을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과 독일 양국 의회가 한국 독일 관계 발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상호 이타적인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설립된 한독포럼을 통해 양국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당면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주 문	주 문
<u>대한민국국회</u>는 한국과 독일이 1883년 11월 26일 통상우호항해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 립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미래 를 향한 소중한 동반자로서 <u>공고</u> <u>한 우호협력관계를</u> 공고히 해 왔 으며 양국의 발전을 위해 상호연 대를 공고히 해 왔다.	<u>대한민국 국회</u>는 한국과 독일이 1883년 11월 26일 통상우호항해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 립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미래 를 향한 소중한 동반자로서 <u>우호</u> <u>협력관계를</u> 공고히 해 왔으며 양 국의 발전을 위해 상호연대를 공 고히 해 왔다.
<u>제 2차 세계 대전</u> 이후 한국 과 독일은 지속적으로 자유 민 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 다. 서독은 전후 한국의 경제부 흥을 위하여 재정, 경제 및 기술 원조를 제공하였고, 한국은 서독 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노동력	<u>제2차 세계대전</u> 이후 한국과 독일은 지속적으로 자유 민주주 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서 독은 전후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재정, 경제 및 기술원조 를 제공하였고, 한국은 서독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노동력 지원

지원요청에 따라 한국 간호사 및 광부를 파견하여 1963년 247명의 한인 광부가 서독에 도착한 이래 1977년까지 총 7,936명의 광부, 10,564명의 간호사(1965-76년) 파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독투자는 누적액 기준 63.8억불이며 독일의 대한투자는 141.7억불에 달하고 있다. 현재 양국 간 286억불에 달하는 교역량과 유럽연합(EU)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써 교역 경제 다변화 차원에서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회불평등, 청년실업, 지역불균형, 여성차별 등 현재 세계 각국이 봉착하고 있는 구조개혁적 과제를 먼저 다루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향후 기후위기

요청에 따라 한국 간호사 및 광부를 파견하여 1963년 247명의 한인 광부가 서독에 도착한 이래 1977년까지 총 7,936명의 광부, 10,564명의 간호사(1965-76년)를 파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독투자는 누적액 기준 63.8억불이며 독일의 대한투자는 141.7억불에 달하고 있다. 현재 양국 간 286억불에 달하는 교역량과 유럽연합(EU)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써 교역 경제 다변화 차원에서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회불평등, 청년실업, 지역불균형, 여성차별 등 현재 세계 각국이 봉착하고 있는 구조개혁적 과제를 먼저 다루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향후 기후위기 대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DNA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할 공통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테러로 촉발된 전쟁과 북한의 지속되는 핵위협은 이러한 양국 간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지난 10월 독일연방의회는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을 과반수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역시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상황 변화에 맞추어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익 증진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독일연방공화

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DNA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할 공통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삭 제)

(원안과 같음)

1. 대한민국 국회는 독일연방공

국의 민족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독일이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이 민족분단의 아픈 역사를 공유한 연대감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테러로 촉발된 전쟁과 북한의 지속되는 핵위협은 이러한 양국 간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욱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현재 양국 간 280억불에 달하는 교역량과 유럽연합(EU)내

화국의 민족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독일이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이 민족분단의 아픈 역사를 공유한 연대감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삭 제)

(원안과 같음)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점에 만족을 표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과 투자의 증진, 기술협력의 강화 등 경제통상 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데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한·독관계의 역사적 긴밀성과 양국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국제적 역량과 비중으로 비추어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제반 핵심 미래 산업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콘텐츠, 경제, 산업·과학기술 분야 공조를 더

3. 대한민국 국회는 한·독관계의 역사적 긴밀성과 양국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국제적 역량과 비중으로 비추어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제반 핵심 미래 산업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콘텐츠, 경제, 산업·과학기술 분야 공조를

욱 공고하며, 독한근로자채용협정의 일환으로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광부 8,000여명과 간호인력 10,000여명은 독일(서독)에 크게 기여한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사회초년생 및 청년을 위한 단기 인턴십 또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의 언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촉구한다.

4.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회불평등, 청년실업, 지역불균형, 여성차별 등 현재 세계 각국이 봉착하고 있는 구조개혁적 과제를 먼저 다루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

더욱 공고히 하며, 독한근로자채용협정의 일환으로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광부 8,000여명과 간호인력 10,000여명은 독일(서독)에 크게 기여한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사회초년생 및 청년을 위한 단기 인턴십 또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의 언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촉구한다.

4.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회불평등, 청년실업, 지역불균형, 여성차별 등 현재 세계 각국이 봉착하고 있는 구조개혁적 과제를 먼저 다루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

하고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할 공통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기후 보호를 국가적 목표로 선언하고 파리 협정을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양국은 노력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과 독일 양국 의회가 한국 독일 관계 발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상호 이타적인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설립된 한독포럼을 통해 양국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당면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하고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할 공통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기후 보호를 국가적 목표로 선언하고 파리 협정을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원안과 같음)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과 독일이 1883년 11월 26일 통상우호항해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미래를 향한 소중한 동반자로서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왔으며 양국의 발전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독일은 지속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서독은 전후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재정, 경제 및 기술원조를 제공하였고, 한국은 서독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노동력 지원요청에 따라 한국 간호사 및 광부를 파견하여 1963년 247명의 한인 광부가 서독에 도착한 이래 1977년까지 총 7,936명의 광부, 10,564명의 간호사(1965-76년)를 파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독투자는 누적액 기준 63.8억불이며 독일의 대한투자는 141.7억불에 달하고 있다. 현재 양국 간 286억불에 달하는 교역량과 유럽연합(EU)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써 교역 경제 다변화 차원에서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불평등, 청년실업, 지역불균형, 여성차별 등 현재 세계 각국이 봉착하

고 있는 구조개혁적 과제를 먼저 다루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DNA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할 공통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난 10월 독일연방의회는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을 과반수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역시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상황 변화에 맞추어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익 증진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민족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독일이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이 민족분단의 아픈 역사를 공유한 연대감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2. 현재 양국 간 280억불에 달하는 교역량과 유럽연합(EU)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점에 만족을 표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과 투자의 증진, 기술협력의 강화 등 경제통상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데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독관계의 역사적 긴밀성과 양국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국제적 역량과 비중으로 비추어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제반 핵심 미래 산업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콘텐츠, 경제, 산업·과학기술 분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독한근로자채용협정의 일환으로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광부 8,000여명과 간호인력 10,000여명은 독일(서독)에 크게 기여한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사회초년생 및 청년을 위한 단기 인턴십 또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의 언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촉구한다.

4.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평화통일을 달성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회불평등, 청년실업, 지역불균형, 여성차별 등 현재 세계 각국이 봉착하고 있는 구조개혁적 과제를 먼저 다루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할 공통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기후 보호를 국가적 목표로 선언하고 파리 협정을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과 독일 양국 의회가 한국 독일 관계 발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상호 이타적인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설립된 한독포럼을 통해 양국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당면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제안이유

2023년은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광산근로자 파독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양국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 각별한 신뢰와 우정을 쌓아왔으며 오늘날 상호 소중한 협력파트너로서 공고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분단의 상처를 딛고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 온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더욱 각별한 연대감을 지니고 있음. 또한 지난 2023년 10월 19일 독일연방의회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으로 한번 더 확인하였음.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간 상호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독일연방 하원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지원을 포함,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구심점을 역할을 다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